

정보와 통신의 대가 (對價)

유경희
한국정보유통센터 회장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보 이용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깝다고 여기고 있다. 정보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습성에 익숙하지가 않다. 정작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라고 한다면 아예 이용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정보의 값을 제대로 지불하는 일은 생활화하지 못하여왔다. 가령,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라던가 “빌린책 되돌려주면 바보다.” 라느니하는 현대감각으로 알맞지 않는 사실들이 속담으로 사용될 정도이다. 복사기술이 오늘날처럼 발전하지 못했던 옛날에도 일일이 손으로 써서 베껴서 만든 것들도 많았지만 대체로 베끼는 값을 제대로 지불한것 같지가 않다.

우리집에는 전화요금 고지서가 달마다 날라온다. 여기에는 전화사용료는 물론 간혹 보내는 전보요금도 여기에 추가되어 고지되어 오기도 하고, 때로는 700

번 서비스에 의한 추가요금도 여기에 고지된다. 최근에는 수재의 연금 모집도 전화 한통에 2천원씩 부가시켜서 고지된다. PC통신요금, ISDN전화요금, 그밖의 데이터의 부가사용료가 따로따로 고지되어 온다. 여기에다가 이동전화요금도 고지되어 온다.

빼빼는 가족수만큼 고지되고 이동전화도 여족없이 사용한만큼 고지되어 온다. 실은 우리집에서는 통신료를 아끼지 않는 집이 되어서 언제나 가족들과 통신료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한달에 몇십만원 단위로 통신료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1-2만원의 전화요금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가정이 있다. 심지어는 고령자 PC통신클럽인 원로방의 정회원 가운데도 매월 부과되는 전화요금이 불과 1-2만원쯤 추가되는 이유로 가정의 경제권을 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못쓰겠다고 말하는 어른도 계시는것은 사실이다. 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T.S. 엘리엇의 “사랑의 시” 한 구절을 검색해내었다. 사용료가

약6천원정도 나왔다. 시 한편에 6천원인 셈이다. 마음이 울적할때 사랑의 시를 한편 읽는데 6천원이 뭐 비싸나만, 정보의 대가를 지불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는 삼계탕 한그릇값이므로 비싸다는 느낌을 주는것이 상식이다.

얼마전에 미국의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좀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웬걸 1년 무제한 사용으로 1천만원을 내란다. 어처구니가 없다. 책을 1천만원어치를 산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1년분을 내고 쓰라고 하면 누가 사용하겠는가? 한국에서의 시내전화요금은 3분1통화에 40원이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한통화에 80원꼴이다. 반값이다. 그러나 한국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비싸게 느껴진다. 왜 그런지 정말로 이상하다. 서비스란 말이 있다. 특히 정보서비스란 말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말은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아직도 서비스란 용어의 뜻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다. 가령, 외국에서는 서비스에도 요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란 말이 널리 쓰인다.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란 말을 용역이란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만 서비스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것이 아니라고 통하고있다. 어느 뒷골목 술집의 간판에 “안주는 서비스”라고 쓰여져 있는것을 본 일이 있다. 이 말은 술값만 내면 안주는 공짜로 준다는 뜻인가 본데, 서비스란 말이 언제부터인지 공짜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것같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면, 첫째 데이터 이용료를 이용한만큼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통신료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반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지적재산보호를 잘하지 못하는 나라로 낙인이 찍혔다. 정보의 대가를 지불하는 습성을 선진화하여야만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산업답게 육성될 것으로 본다. 가령, 정부기관이나 기업 및 대학에 종사하는 수많은 정보이용자들이 스스로 정보통신 이용료를 부담하면서 이용하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지게 된다. 기껏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정보통신료는 기껏해야 전화요금밖에 없거나 제법 인식도 높더라도 PC통신 이용료에 불과할 것이다.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모두가 소속기관이 비용부담을 하고있는 셈이다. 최근의 해외 데이터를 사용해보고 놀란것은 데이터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사실이다. 불과 5년전 10년전만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돈범위내에서 충분히 사용할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비싸지게 된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것이고, 둘째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이 정도의 정보이용료를 물게 되어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사실을 전혀 그렇지 않다. 게임을 사용하는데도 돈을 받고 비디오를 빌리는데도 돈을 내어야 한다. 가정에서 TV시청료를 내는것은 이미 일반화되었다. 신문구독료도 일종의 정보이용료이지만 이것도 돈을 낼줄은 안다. 적어도 전화사용료도 요금을 내는데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다만, 데이터사용료에 대해서만은 거부감이 대단히 크다. 막상 요금의 내용을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단위요금을 보면서 “다음번에 신청하지...”라는 식으로 결심을 늦

추어 버리는것이 상식으로 되어 버렸다.

영화관람료에서 일정한 금액이 영화만드는데 쓰이는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지원할 자금의 소스를 어떻게라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의 멀티미디어산업협회의 회장과의 대담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 “멀티미디어산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려면 섹스와 게임밖에 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니 교육자료니 해도 이들은 도무지 사업적으로는 성공할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렇다고 섹스와 게임만을 육성하자고 말을 할수 없지만...”이라고 한탄하는 말을 들었다. 한동안 공기나 물에 대해서 돈을 낸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여왔지만 이제는 공기에 대해서도 물에 대해서도 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화되었다. 시간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와 통신도 거의 모두가 시간에 비례해서 요금이 부과된다. 다시말하면 시간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세상이 되어간다. 정보도 통신도 이제는 돈을 내어야한다는 인식을 더욱 고취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DC**

